

# 설정식의 시세계

金 榮 菩\*

## I. 논점의 제기

한국 현대 문학사의 파행성과 불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문학사 기술에서 소외되어 왔던 월·남북 작가의 작품연구와 해외 유이민 문학의 검토가 필수적이라 본다. 개별문학의 의미매김이 전체적 조망에서 가능한 것이라면 한국문학사의 paradigm의 구축을 위해서 이 두 영역은 시급히 천착돼야 할 과제이다. 88년 7월 해금조치 이후 활발해진 해방기 문인의 연구도 이러한 문학사적인 소명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설정식은 바로 이 해방기 문단을 대표하는 문인인 바 해방직후 3년 동안 3권의 시집과 7편의 장·단편을 상재하였고 번역문학에도 많은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문학사기술에서 거의 언급된 바 없고 근래 활발해진 해방기 문학연구에서도 다소 미흡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sup>1)</sup> 월·남북 문인들의 공통된 현상이긴 하지만 작가의 생애와 연보마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설정식의 시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연대기의 체계적 정리는 선행돼야 할 과제이다. 또한 설정식의 경우 단순한 해방기의 시인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와 문학이 첨예하게 맞물렸던 해방공간에서 문제적 개인으로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제 강점기에서 제3의 계보에 속하는 지식인으로서,<sup>2)</sup>

\* 전국대 문파대 국문과

- 1) 김윤식, 「소설의 기능과 시의 기능」, 『한국현대소설비판』(일지사, 1981).  
김용직, 『해방기 한국시문학사』(민음사, 1989).
- 2) 제1계보(국혼적 민족주의—만해, 이육사), 제2계보(문화적 민족주의—육당·춘원·김동인) 외에 일본 아닌 해외에서 유학한 지식인.  
김윤식, 앞의 책 pp. 174-175.

미국에 유학하여 미국문학을 전공하고 해방후 미군정청의 고위관리로 근무하다 공산당에 입당했고 끝내는 박현영 일파의 숙청계획에 따라 41세의 짧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것이다. 선비가문으로서의 주자학적 세계관, 광주학생 사건, 만보산사건, 아나키스트와의 교류를 통해 익힌 민족의식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설정식의 半面이라면 미션교육을 통한 기독교적 세계관, 4여년의 미국유학에서 접한 자유시민 정신과 자본주의 이데오로기는 또 하나의 설정식의 半面이다. 해방정국이 미소 양대국의 해제모니 쟁탈전으로 변모했고 이 와중에 체제와 이념의 선택이 지식인들에게 강요사항으로 주어졌을 때 이 야누스적인 양면을 지닌 설정식의 개인사적 비극이 시작됐던 것이다. 그의 시쓰기가 예술의 분비물로서가 아니라 이념의 분비물로서 편향되었고 문학운동이 정치운동에 철저히 예속됨으로써 그의 시와 시인으로서의 한계가 드러났던 것이다.

## Ⅱ. 생애 및 작품년보

수집된 몇 가지 자료를 통하여 설정식의 생애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3)</sup>

- ① 1912년 : 9월 18일 함남 단천생. 선비가문. 누이(설정순)와 두 동생 있음. 호 梧園, 何鄉.
- ② 1919년 : 서울 이주. (본적은 서울시 효자동이나 소학교 시절 계동으로 이주)
- ③ 1929년 : 11월 광주학생사건에 가담했다는罪로 서울 농업학교 퇴학<sup>4)</sup>
- ④ 1930년 :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만주 봉천으로 감.

3) 설정식의 생애를 엿볼 수 있는 자료는 ① Tibor Meray, 「한 시인의 추억」(사상계, 1962년 9월호), ② 이철주「북의 예술인」(계몽사, 1966), ③ 「홍명희, 설정식 대담기」(신세계, 1948년 5월), ④ 숙청·판결문「남로당연구」(돌베개, 1984년) 등이 있고 자전적 소설『청춘』(1946)을 참고 할 수 있다.

4) 「서울에서 농업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T. 머레이 「한 시인의 추억」)라고 회술하고 있어 교명이 불분명함.

- ⑤ 1931년 : 만보산 사건(7월)으로<sup>5)</sup> 북경으로 피신하여 잠시 머물다 귀국.
- ⑥ 1932년 : 연희전문 영문과 입학. 성경 및 미국문학에 심취. 아나키스트 이영진과 교제. 크로포트킨의 「빵의 착취」 등 탐독. 「거리에서 들려주는 노래」 東光지에 입선.
- ⑦ 1936년 : 연희전문 졸업. 미국유학.<sup>6)</sup> 오하이오주 Mount Union大에 서 영문학 전공. 콜럼비아대에서 2년간 석스파이어 전공.
- ⑧ 1940년 : 귀국. 일자리 없이 농장일과 독서생활
- ⑨ 1941년 : 헤밍웨이 단편 「불패자」 번역(인문평론)  
「토마스·울프에 관한 노트」 발표(인문평론)
- ⑩ 1945년 : 10월 미군정청 공보처 여론국장(1년간)
- ⑪ 1946년 : 2월 조선문학가동맹 외국문학부 위원  
8월 조선문학가동맹 서울지부 문학대중화운동위원회 위원  
9월 조선공산당 입당  
10월 미군정청 과도입법원 사무차장  
장편 「청춘」, 단편 「프란시스두셋」 발표.
- ⑫ 1947년 : 1월 미군정청 사무차장직 사임하고 입법의원 부비서장  
8월 문학가동맹 외국문학부 위원장  
4월 제 1 시집 「종」 발간.
- ⑬ 1948년 : 2월 영자신문 「서울 타임즈」 주필  
10월 「문장」 속간호 발행, 소설부 추천위원  
제 2 시집 「포도」(2월), 제 3 시집 「제신의 분노」(11월)  
단편 「한 화가의 최후」, 장편 「해방」 발표.
- ⑭ 1949년 : 12월 좌익소설 「한류」「난류」 창작하고 「제신의 분노」가 판금처분되어 체포령 내려 「보도연맹」가입. 연맹기관지 「애국자」

5) 만보산 사건은 1931년 7월에 있었던 韓·中 농민의 충돌사건.

박영석, 「만보산 사건 연구」(아세아문화사) 참조.

6) 미국 유학시기에 대해서는 자신의 슬회사가 엇갈리는데 「한 시인의 추억」에서는 1936년으로, 판결문의 기록에서는 1937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수학년도로 볼 때 1936년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에 유학해서 明治大를 졸업한 것으로 기술된 문헌도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찾기 어렵다.

에 「붉은 군대는 물리가라」 반공시 발표. 「하무렛」 번역 간행.

- ⑯ 1950년 : 인민군에 의해 서울 합락되자 문학가동맹 다시 가입. 9월 10일 인민군에 자진입대. 인민군전선사령부 문화훈련국 7부 근무. 근무중 심장병 앓음.
- ⑰ 1951년 : 7월 개성 휴전회담 인민군대표단 남일의 통역관. 인민군 소좌. 병원치료때 쓴 항가리와 북한의 우정을 그린 서사시가 항가리어로 번역출판됨.
- ⑱ 1953년 7월 30일 남로당계 숙청일환으로 기소. 8월 「인민공화국 정권전복음모, 반국가적 간첩테러 선동행위」죄로. 임화, 김남천, 이원조와 함께 처형됨.

이상의 연보에서 볼 수 있듯이 설정식은 두 개의 이념과 체제속에서 카멜레온적 변신과 선택을 거듭하면서 8·15의 해방정국을 영위해 갔음을 알 수 있다.

### Ⅲ. 해방기의 문학운동과 시판

#### 1. 창작양상 및 문학운동

설정식의 생애가 중국과 미국체험 등 다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창작활동도 시, 소설, 평론, 번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시창작은 1931년 「묘지」를 출발로 해서 「거리에서 들려주는 노래」(1932), 「새그릇에 담은 노래」(1932) 등 해방전에 8편의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작품들은 습작기의 수준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들이고 본격적인 시창작은 해방후에서부터이다. 해방후 「종」(1947), 「포도」(1948), 「제신의 분노」(1948) 등 세 권의 시집을 상재하여 양적인 면에서 볼 때 해방기의 어느 시인보다 출중한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이에 상응한 시론들도 수편 발표하여 이론적인 뒷받침도 병행하고 있다. 비록 단편적인 것들이긴 해도 그의 시세계에 대한 이론적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어 시인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설정식은 해방기의 대표적 시인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다. 해방전에 몇 편의 습작활동을 거쳐 시인으로서의 자질을 익힌 후 해방정국과 함께 본격적인 시창작을 전개했던 것이다. 시외에도 소설에 손을

대어 장편 「청춘」(46년 5월), 「해방」(48년 1월)과 단편 「프란시스·두셋」(46년 12월), 「한 화가의 최후」(48년 4월), 「척사제조자」(48년 1월) 그리고 좌익소설인 「난류」와 「한류」를 발표하였다.<sup>7)</sup> 그밖에 「불패자」(헤밍웨이작), 「햄릿」, 「로미오와 쥬리엣」, 「멕베드」(미간) 등을 번역 한 바 있다. 1948년 그가 주필로 있던 영자신문 「서울타임즈」가 폐경했다고 탄압받게 되고 그 해 11월에 상재된 「제신의 분노」가 판금처분되면서 그의 창작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이와 같이 설정식은 1945년에서 1948년까지 3년간 세 권의 시집과 5편의 장·단편을 발표하는 등 왕성한 창작열을 불태웠던 것이다.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그의 시창작이 정치활동과 긴밀히 접맥된다는 것이다. 이점은 해방기 문인들의 공통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특히 설정식은 임화, 유진오 등과 함께 전위적이고 진보적인 시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과격한 내용으로 1년간의 옥고를 치룬 신진 시인 유진오 등과 함께 정치적인 행사에 시낭송과 추모, 기념시 등을 쓰으로써 정치운동으로서의 시쓰기를 실천에 옮겼던 대표적 시인으로 자리잡고 있다.<sup>8)</sup> 설정식의 이름이 해방 문단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46년 2월에 결성된 「조선문학가동맹」 외국문학부 위원으로서이다.<sup>9)</sup> 좌익문단은 이미 임화 중심의 「조선문학건설본부」(1945. 8. 16), 이기영 중심의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1945. 9. 17), 그리고 이들의 통합단체인 「조선문학동맹」(1945. 12. 13) 등이 결성되었으나 여기에 설정식은 참여하지 않고 46년 2월에 와서야 좌익문학단체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표면상으로는 좌익문단에서 설정식의 위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좌익문인들의 2차 월북이 본격화되던 1947년 8월에야 그나마 한직인 외국문

7) 「난류」와 「한류」는 판결문에서 설정식이 밝히고 있다. 김남식, 「남로당연구 I」(돌베개, 1984), p. 496.

8) 몇 예를 보면 1946년 7월 조선문학가 동맹 주최 수해구제 문예강연회에서 시 「死」낭송, 1948년 4월 한글학회 「조선말사전」 간행 축하연 시 낭송 등을 들 수 있다.

9) 김윤식 교수는 1945. 12. 13일에 결성된 조선문학동맹에 외국문학위원회에 설정식의 이름이 보이고, 1946년 2월의 조선문학가 동맹에는 없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김윤식, 앞의 책, p. 197.

학부 위원장직을 맡았던 것이다.<sup>10)</sup> 이러한 이유는 설정식이 이미 미군정 청에 몸담은 상태였기에 그를 경계했거나 그를 표면에 내세우지 않음으로써 그를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어째든 설정식은 좌익문단에서 표면상으로는 미미한 존재로 나타나나 정치집회에서의 시낭송과 시창작은 꾸준히 개진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8년 10월 정지용과 더불어 「문장」 속간호를 출간하고 소설부 추천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좌익문단의 최후 보루를 지키다가 49년 12월 「보도연맹」에 가입하여 그 기관지인 「애국자」에 전향시 「붉은 군대는 물러나라」를 쓰기도 했다.<sup>11)</sup> 1950년 인민군에 의해 서울이 함락되자 다시 문학가 동맹에 가입하여 서울에서의 마지막 문학운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1, 2차 기간을 걸쳐 좌익문인들이 대거 월북했지만 설정식은 김기립, 정지용, 이용악, 박태원 등과 함께 끝까지 남아 해방기의 서울문단을 지켰던 것이다.

## 2. 시론과 시판

설정식의 시론은 거의 단편적인 것에 그쳐 해방기의 좌익문단에서 펼쳤던 문학논의와 깊게 접목시키기는 어렵다. 주지하다시피 좌익문단은 박헌영 주도하의 남로당 계열의 정치노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문학이념을 정립하여 진보적 리얼리즘, 혁명적 낭만주의, 민족형식론, 구국문학론 등을 현란하게 전개시킨 바 있다. 그의 시론으로는 ①「시와 창작」(중앙신문, 47년 10월 26일), ②「시의 위치」(「신인」 48년 3월), ③「실사구시의 시」(조선중앙일보, 48년 6월 29일), ④「Fragments」(「제신의 분노」 부록, 48년 11월) 등이 있는데 이중 「실사구시의 시」가 48년 4월 이후 좌익문화운동의 파멸기에 들어서서 전개된 구국문학론에 접목되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면 설정식은 이론보다는 창작에 승했던 시인으로 볼 수 있다. 설정식이 본격적인 문학논의는 전개하지는 못했지만 좌익문단에서 전개했던 진보적 문학논의의 편린은 도처에서 엿보인다. 먼저 홍명희와의 대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민족문학인데 이것을 위하여 봉건

10) 김남식, 앞의 책, p.496.

11) 김남식, 앞의 책, p.496.

과 일체 잔재를 소탕하고 핫쇼적인 국수주의를 배격하여 민족문학을 전설함으로써 세계문학과 연결을 가지려고 할 때입니다.<sup>12)</sup>

여기서 설정식이 주장하고 있는 민주주의 민족문학은 반제국주의, 반봉건, 반국수주의를 내세웠던 조선문학가동맹의 중심테제였던 것이다. 그들의 민족문학의 개념이란 박현영의 8월 테제인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론에 입각한 인민적 신문학이었던 것이다.<sup>13)</sup> 인민적 토대를 골자로 하는 민족문학론의 편린은 「Fragments」에서도 나타난다. 이 글에서 설정식은 문학에서의 인민성 뿐 아니라 사실성을 강조하여 진보적 리얼리즘론에 접근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시의 최소 공배수는 그 시대 인민 전체의사 최대 공약수로 된 진리에 펼쳐한다.……사실의 투영을 그려서 사실에 펼쳐져 하려는 것이 나의 詩作의도였다. 남조선 사태는 예로 그럴 여유조차 주지 않는다. 결국 사실 자체 속으로 돌입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시의 衣裝을 희생하고 시의 육체를 남길 도리밖에 없다. 다만 객관화시키기를 잊지 말자. 내머리는 한 개 기관에 불과한 것을 잊지 말자. 그리하여 내가 제작하는 시가 인민 최대 다수의 공유물이 되게 하자.<sup>14)</sup>

이 주장에서 주목되는 점은 시는 인민 최대 다수의사의 반영물이고 공유물이라는 것과 衣裝(형식, 기교)보다는 사실 그 자체의 객관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자는 곧 시가 곧 인민적 기초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후자는 리얼리즘을 지향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바로 인민적 토대위에 창작되는 진보적 리얼리즘의 편린으로 볼 수 있다. 이로 볼 때 설정식은 비록 체계화된 이론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조선문학가동맹의 문학운동의 이념을 굳게 신봉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설정식이 좌익문학론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전개한 것은 「실사구시의 시」에서였다. 좌익문인들은 1948년 이후 정세가 급격히 불리해지고 그 동안의 문학운동 즉 문화씨클운동, 문화공작대 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마지막 배수진으로

12) 「홍명희·설정식 대담기」, 「신세대」(1948년 5월) p. 15.

13) 좌익문단에서는 우익측의 문학을 그들의 '민족문학'과 구분하여 '민족주의 문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원조, 「평론계의 현상과 전망」(중앙신문, 45. 12. 26)

14) 「제신의 분노」, 「월북작가 대표문학」 14집, 서울출판사 p. 155.

구국문학론을 전개하게 된다. 남한만의 **單選**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문학운동도 거족적인 구국투쟁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남로당의 구국투쟁의 지침에 따라 1948년 4월에 「문학」지를 통하여 구국문학론이 선언되고 6월에 안희남, 김영석, 조허림, 설정식 등을 중심으로 이론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들의 공통된 주장은 위기상황에서 창작적 실천보다 조직운동이 중시돼야 한다는 것인데 설정식도 그 무렵까지의 문학가동맹의 작품이 인민의 현실에 밀착되지 못했고 그런 전제 위에서 싸우는 민중의 편에 서서 그들의 현실을 집약 제시하는 길이 올바른 시의 길이고 구국문화입을 주장하고 있다.<sup>15)</sup>

## IV. 시 세계

설정식의 시세계는 ① 해방이전의 초기 습작기 단계 ② 해방의 현실 인식과 고발 ③ 진보적 리얼리즘과 혁명적 로맨티시즘의 세계 ④ 메시아주의와 예언자적 목소리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이들을 요약하면 현실 인식과 미래에의 전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상보적인 틀 속에서 이데오로기와 관념이 혼용되어 형상화된 것이 설정식의 시들이다. 특히 이러한 시의식이 해바라기 이미지로 응집되어 표출되거나 서사적 짜임의 형태로 나타남이 특징적이다.

### 1. 초기시

해방이전에 발표된 8편의 시들은 시형식과 정서면에서 이원적인 양상을 보여 준다. 단행의 서정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비교적 긴 호흡의 현실인식의 시도 함께 자리잡고 있다.

바람속에

굴래가 그리운

말대가리 하나

언덕 아래로 아래로

들국화는 누구의 꽃들이냐

15) 김용직, 앞의 책, pp. 142-144.

긴 이야기는

무슨 사연

오래 오래

갈대는 서로 의지하자.<sup>16)</sup> (「가을」)

가을바람에 흔들리어 피어있는 들국화와 갈대의 속삭임을 짧은 시형 속에 담고 있다. 이러한 순수서정의 시정서는 「표지」(1931), 「샘물」(1932) 등에서도 물씬 풍겨난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는 다소 거친 시어와 산문적인 호흡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냉큼 서거라 서라 동생아!

이 불쌍한 어린것아 두다리가 부리겠느냐

어서 바빠 형이 잊개울때 번득 일어나거라

그래서 그 널쪼박에 電線토막 대신 病身썰매를

앉어서 뭉개될때 밀던 쇠꼬챙이와 함께 내어 던지고

내 高喊에 발맞어 두다리쭉벗고 가슴벼리고

어름깔린 강판위를 내달리라.

다름없는 圖을 더듬어 구울으는 太陽의 發散하는 빛이

같은 電柱밑에 그 時刻의 그림자 색일 때

나는 동모를 맛낫노라

「괴로운 自問自答에

가슴쓰려 발썼다가

미다지 韶었네」

그는 이 한쪼각 시를 주며 나에게 물기에

부릅뜨고 소리질러 그에게 들려준 노래있으니—

동모여! 精神을 가다듬어

크게 땅이 꺼지도록 更生의 深呼吸을 하라

그대는 그 숨의 彈力を 얻을지니……<sup>17)</sup> (「거리에서 들려주는 노래」)

이 시는 1930년대를 전후하여 KAPF시에 등장하던 단편 서사시의 형식

16) 「조광」 1937년 10월호, 시집 「종」 수록.

17) 「동광」 1932년 3월호.

을 취하고 있다. 더구나 이 시가 1932년에 발표된 것이고 보면 습작기 단계에서 당시에 유행되던 프로시를 모방했거나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같은 해에 발표된 「새그릇에 담은 노래」는 가난한 농부와 서민, 빈대피 물은 현 신문지, 궁핍화해가는 고향모습을 다루고 있어 강한 현실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거리에서 들려주는 노래」가 형식면에서 프로시를 모방하고 있다면 이 시는 내용면에서 프로시에 접근하고 있다. 비록 설정식이 KAPF에 몸담은 적이 없지만 이 시기가 그의 학생시절이고 시작에 눈뜰 때였던 만큼 당시에 문단의 패권을 잡고 있던 프로문학의 흥내는 어찌면 자연스러운 것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해방전에 발표된 초기시들의 주류가 단형의 서정시이고 보면 해방전까지의 설정식의 현실인식과 역사의식은 그렇게 뚜렷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방정국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그의 현실인식은 뚜렷해지고 초기에 프로시의 모방형태로 잠재해 있던 서사시적 목소리가 강렬하게 분출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 2. 해방정국의 형상화

설정식은 해방정국을 맞이하면서 해방의 혼미한 역사공간을 예리한 시각과 현실인식으로 담아냄으로써 시인으로서의 위상을 구체화하기 시작한다. 1930년대에 선보였던 예비시인으로서의 자질은 돌연 해방의 급류속에 휘말리면서 급상승하기에 이른다. 해방을 맞는 설정식의 정서 대옹은 비교적 어두운 편에 속한다. 정서대옹이 역사인식과 별 수 없는 것이라면 그의 역사인식 역시 비극적인 편에 속한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그 환희 뒤에 길게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를 예리하게 투시하고 있다.

- 아 해방이 되었다 하는데  
하늘은 왜 저다지 흐릴까<sup>18)</sup> (「原鄉」)
- 무서운 회통이도다  
누가 와서 벌여놓은 노름판이냐<sup>19)</sup> (「단조」)

18) 시집 「종」수록.

19) 시집 「종」수록.

그리나 그대는 들었는가  
 楊貴妃 난만한 동산  
 ‘白人의 負擔’이란 寓話를  
 그리고 ‘알타’회담으로 몰아가는  
 ‘캬디락’ 바퀴소리를  
 흰손이 닦는 ‘티울’문소리를 그리고  
 ‘삼펜’주 터지는 소리를  
 墨風이 불어와  
 노리개 自由는  
 비단이 解放은 그림자마저  
 떠 우에서 거더하고 날려가련다.<sup>20)</sup> (『우화』)

해방의 기쁨도 잠시 미소 강대국의 노름판으로 전락한 해방조국의 흐린 하늘을 노래하고 있다. 환희에 들렸던 해방의 열기는 캬디락 바퀴소리와 삼펜주 터지는 소리(外勢)로 잠재워졌고 소리개 자유와 비둘기의 해방은 흑풍(內訌)이 불어 닥쳐 그 그림자마저 사라질 판이다. 「태양없는 땅」<sup>21)</sup>에서는 해방조국을 곡식이 익어도 쓸데 없는 땅, 모든 인민이 등을 대고 돌아선 태양없는 땅으로 묘사하고 있다. 혼돈과 혼미의 와중으로 급격히 휘몰아쳐 가는 해방정국의 어두운 역사흐름을 예리하게 묘파하고 있다. 설정식은 이러한 해방의 부정적 인식과 함께 해방정국의 탁류 현상을 테러와 체포가 횡행하는 공포 분위기, 전재민의 비참한 생활상 등을 통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바늘끝 차거운 별이 총총  
 가시같은 밤에  
 또 총소리가 들린다  
 낙산 바위같은 심장이 또하나 깨어졌다  
 민주주의자여 유언은  
 총소리 뿐이다  
 총소리를 들은 모든 민주주의자가  
 조용히 이를 깨문다  
 그러자 또 총소리가 들린다

20) 시집 「종」수록.

21) 시집 「종」수록.

진리는 이렇게

千疊萬孔이 되어야 하느냐

아 정말 神이래도 있으면 좋겠다.

우리 편인 神이 ——<sup>22)</sup> (「진리」 전문)

테러와 체포, 구금으로 얼룩진 해방정국의 공포 분위기를 실감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물론 이 시에서 우리 편은 좌익진영일 것이고 민주주의자는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론을 신봉하는 남로당계의 혁명분자일 것이다. 진리가 이렇게 천착만공이 되어야 하겠느냐고 노래하고 있지만 이미 편을 갈라 놓은 상태에서의 진리라면은 그것은 편향된 진리일 수밖에 없다. 아놓든 설정식은 좌익과 우익으로 편이 갈리어 체포와 테러로 더욱 악화되어 가는 해방정국의 혼란상을 생생이 중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 외에도 「霖雨」, 「승가」, 「신문이 커졌다」 등에서도 테러를 중심소재로 다루고 있다.

200만을 웃도는 전재민의 처리도 해방정국이 풀어 가야 할 과제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들을 거의 방치하고 오히려 적산을 소수의 일부 계층에게 배분함으로써 전재민의 궁핍화가 더욱 가속되었던 것이다.<sup>23)</sup> 전재민의 비참한 생활상은 해방기 시인들의 공통된 소재로 떠올랐던 바 설정식도 예리한 시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담 뒤에 똑탁거려서 짓던

戰災民의 지붕은 널장이든데

이 비를 무엇으로 막는가

열세 대가리 머리털로 막는가

오늘 저녁 굴뚝에

연기 오르는 것을 보지 못하였는데

비 물에 불이 꺼졌는가

어린 것이 폐쓰는 소리만이라도

함경도 사투리가 아니면

22) 시집 「제신의 분노」 수록.

23) 귀속재산은 대부분 일제시대 연고자에게 불하되거나 민간인에게 쌍값으로 매각함으로써 적산의 국유화라는 독립운동단체들의 합의는 무산되고 말았다. 강만길, 「한국현대사」(창작과 비평사, 1984) pp. 229-231.

## 아 원수의 故鄉

견디기 나오렷마는——<sup>24)</sup> (「涇雨」)

비새는 널장 지붕 밑에서 저녁끼니도 떼우지 못하는 전재민들의 비참한 생활상이 그려지고 있다. 배고파 보채우는 어린것의 함경도 사투리가 그 처절함을 더하고 있다. 일제의 잔혹한 수탈정책으로 문전옥답과 고향을 등지고 일본, 만주, 연해주로 흘러 들어가 값싼 노동자나 소작농 민으로 유리결식했던 전재민들,<sup>25)</sup> 해방조국에 부푼 희망을 안고 찾아왔건만 그들을 기다리는 건 혼란과 기아뿐이었던 것이다. 전재민의 방치와 귀속재산의 불공평한 처리는 미군정의 커다란 실정이었던 것이고 이를 계기로 좌익진영에서 토지와 적산의 무상분배를 정치이슈로 들고 나와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해갔던 것이다. 미군정청에 몸담아 고위관리 까지 지내던 설정식이 「제국의 제국을 도모하는 자」와 같은 반미시를 제작하는 계기도 이러한 현실인식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 3. 진보적 리얼리즘과 혁명적 낭만주의

박현영이 8월태제로 채택한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론이 문학운동에 파급되면서 민주주의 민족문학론이 수립되고 이 문학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창작방법론으로서 진보적 리얼리즘과 혁명적 낭만주의가 제창되기 에 이른다. 김남천은 1946년 2월 전국문학자대회에 보고한 「창작방법론에 대한 소고」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형상화하는 진보적 리얼리즘과 이 민족적 과제를 위해 싸우는 영웅적이고도 투쟁적인 정신을 그려내는 혁명적 낭만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로맨티시즘의 토대가 되는 것은 현실에 만족치 않고 명일과 미래의 부단한 전진, 다시 말하면 현실적인 동상, 미래를 위한 의지, 가능을 위한 치열한 꿈 등인 것인데 일제에 의하여 해방은 되었으나 국수주의와 봉건적 잔재와 일본제국주의 잔재를 소탕하고 토지문제의 혁명적 해결과 전취에 의하여 비로소 민주주의적 과제의 해결을 볼 수 있는 현재의 민족적 상황에서 이것을 위해 싸우는 민족의 거대한 꿈과 영웅적 정신이야말로 정히 민족의 위대한 로맨티시즘이 아

24) 시집 「포도」수록.

25) 1930년대에 대체로 만주지방에 1백만, 연해주지방에 50만명의 유리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강만길, 앞의 책 pp.99-102.

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적 로맨티시즘을 계기로 내포한 진보적 리얼리즘이란 하나님의 종합적 스타일을 갖춘 민족문학 수립의 커다란 기본적 창작대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26)</sup>

이와 같이 반봉건, 반국수, 反帝를 기저로 한 민족문학수립을 위하여 진보적 리얼리즘과 혁명적 낭만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해방후의 현실은 진보적 민주주의(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을 향해 나가는 현실이었고 이러한 현실을 담아내는 것이 진보적 리얼리즘이었던 것이다. 또한 이 현실에 충실했던 작가라면 현실에 배태되어 있는 미래의 꿈을 예견할 수 있기에 그 꿈을 실현하는 영웅적 정신과 혁명적 열기를 진작하는 정서적 감염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 혁명적 로맨티시즘이다.<sup>27)</sup> 따라서 혁명적 낭만주의는 현실에 입각한 미래의 확고한 전망, 주인공의 영웅적 정신과 혁명적 열기 고취, 이를 위한 정서적 감염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1934년 쓰다노프·고리키 테제에서도 혁명적 로맨티시즘이 현실과 꿈의 변증법적 통일이고 이런 점에서 고차적인 의미의 리얼리즘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sup>28)</sup> 결국 진보적 리얼리즘이나 혁명적 로맨티시즘은 소련에서 1930년대에 검토했던 것으로 해방정국을 맞아 김남천을 중심으로 한 좌익문단에서 그들의 문학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식해 온 창작방법론이었던 것이다. 이제 이러한 방법론이 설정식의 시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진보적 리얼리즘

진보적 리얼리즘의 구체적 항목은 반제, 반봉건, 반국수의 형상화였다. 설정식이 진보적 리얼리즘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바는 없지만 이를 그의 시창작의 덕목으로 삼고 있음이 여실하게 드러난다.

일본제국주의는 서론하고 또 여섯해  
 무게나가는 대추와 사과와  
 하다못해 도토리 열매와  
 우리들의 살이나 다름없는 쌀과 보리를 앗아가고

26) 「전설기의 조선문학」(백양당, 1946) p. 169.

27) 신형기, 「해방직후의 문학운동론」(화다, 1988) 참조.

28) Stefan Morawski, 「The Vicissitudes of Socialist Realism」(MIT Univ. Press, 1974) pp. 259-60.

우리들의 가슬이 두터우면  
 굵은 총알로써 하고  
 여윈 어깨면 여린 칼날을 들어 저미고  
 한애비를 거두어 아비로 하여금 손자를 잡게하고  
 손으로 끄울기 마소같이 하여  
 대동아전쟁이라는 焦熱地獄에 잡아가고<sup>29)</sup> (「弔辭」)

일제의 잔학상이 날낱이 폭로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단편 서사시인 「진혼곡」<sup>30)</sup>에서는 동경지진 때 학살당한 4만여명의 비참한 죽음을 애도하고 있고, 「신문이 커졌다」<sup>31)</sup>에서는 제사공장에서 약을 먹여 여자들의 경도조차 막아가며 혹사시킨 일제의 잔학상이 고발되고 있다. 이러한 반제의식은 일제의 청산 뿐 아니라 해방정국의 변수로 떠오른 미소의 패권주의에로 시선이 옮겨지는데 설정식의 경우 미국을 ‘점령군’으로, 소련을 ‘해방군’으로 인식한 흔적은 없지만 미국을 제국주의 파시스트로 분명히 못박고 있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은 그가 미국체험을 통해 해방직후 미국의 은혜를 받은 대표적 장본인으로서 주목되는 항목이다. 미군이 들어 왔을 때 회망과 낙관에 차 있었으나 그들이 자기네 군사기지가 있는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도 군사기지 그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 실망했다고 술회한 것처럼 끝내 미국을 패권주의자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나는 미국인이 나를 성수를 들어 받아 들인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 미국인에 실망하였던 것이다. 나는 그들이 자기네 군사기지가 있는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 군사기지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나는 농민과 노동자들이 전과 다름없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무리한 경제적 향상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또 그들이 부패와 인권의 억압을 못 본체 하고 그 무자비한 득재자 이승만은 전폭적으로 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sup>32)</sup>

이렇게 미군정에 대해서 실망하고 공산당의 지하조직에 참가하게 된

29) 시집 「제신의 분노」 수록.

30) 시집 「제신의 분노」 수록.

31) 시집 「제신의 분노」 수록.

32) T. Meray, 「한 시인의 추억」(사상계, 1962년 9월호) p.224.

것이 1947년 1월 무렵이었다고 술회하고 있다.<sup>33)</sup>

### 흙탕물

과연 흙탕물이다 어메멘들  
아니 흐를법 없는  
흔탁한 ‘파씨즘’의 흐름이여  
그리로써 하야 石油는  
西班牙로 흘러가는 것이나

.....

‘파씨쓰타’의 무리여  
너의들 까닭에 나는  
‘휘트맨’의 결에 가차이 설 수 없고  
또 이날에도 (독립기념일—인용자 주)  
讚歌로써 하지 못하고  
두 폭넓은 비단 靑緹에 원망을 싸는도다.<sup>34)</sup> (「제국의 제국을 도모하는자」)

한 때는 그렇게 신봉했던 자유 민주주의 국가 미국이었건만 미시시피의 흙탕물처럼 파시즘의 혼탁한 기류가 흐르는 제국주의자 미국을 이제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노래하고 있다. 자유의 투사 세퍼순과 사상가 페인, 민중시인 휘트맨 대신에 파시스트들이 활개치는 곳이 미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오랜 미국유학을 통하여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접했고 그 덕분에 해방직후 미군정청 고위관리까지 지낼 수 있었던 ‘은혜’를 저버릴 수 밖에 없는 의식의 대전환이 엿보인다. 그러나 이 의식의 전환은 오히려 간첩혐의로 반전되었고 소련의 영향권 내에 있던 북한당국에 의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것이다. 해방군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점령군으로서 소련의 제국주의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미국에 대한 피상적 이해와 국제간의 냉혹한 정치적 역학 관계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설정식의 비극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설정식은 민족과 민족해방을 위한 편향된 이데오로기에 맹종함으로써 역사적 개인으로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한편 해방이 된 지금에도 봉건잔재인 지주세력이 존존하고 있는 현실

33) Ibid, p.224.

34) 시집 「포도」 수록.

을 다음과 같이 고발하고 있다.

여기서 또한

南部조선 이백삼십이만 町步 경작면적 중  
농업인구의 3%밖에 되지 않는 지주가  
65%의 기름진 땅을 소유하고 있는 기록과  
96.6%의 농민이  
겨우 37%의 부스러지는 흙밖에 가지지 못한  
사실을 안다.<sup>35)</sup> (「신문이 커졌다」)

극소수의 지주가 65%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극복을 유해 남로당 측에서는 토지의 몰수와 무상분배를 주장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럼으로써 대중적 지지를 얻고 민족통일전선 구축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국수주의자 또는 친일파로 매도한 민족진영에 대한 비판도 도처에서 섬뜩이고 있다. 좌익진영과 민족진영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 그것은 미소 양대국의 냉혹한 이데오로기를 대신한 형제들끼리의 비극적인 혈투였다.

정말 親日派 때문이라고 웨쳐도

革命家에게는

다시 피해야 될 暗黑이 있어야 하겠대도

고지 안듣는 해괴방치한 곳이

南部朝鮮이라면

너는 그래도 알 것이 아니냐<sup>36)</sup> (「기르기를 즐긴다는 五月 太陽과」)

해방된 남부조선에는 친일파가 아직도 엄존하고 있고 그들을 제거해야 할 일이 혁명가의 임무임을 노래하고 있다. 그들이 매도한 친일파는 곧 민족진영을 포괄하는 것이고 혁명가는 좌익진영을 상징한다. 곧 좌우익의 대결인 것이다. 예언자적 목소리로 읊은 「제신의 분노」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구약성서를 인용하여 동생의 목에 칼을 대는 ‘가자’의 무리들로 비유하고 있다. 「송가」 역시 민족진영 즉 그들이 국수주의로 매도

35) 시집 「제신의 분노」수록.

36) 시집 「포도」수록.

한 형제들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아지 못할 동족이 있어  
살베이고 빼앗음을 일삼아  
지속을 자르다 그러나  
잘려도 잘려도 크는  
靑春의 육체는 흙이라  
惡에 謀叛하는 뿌리를 지키기 위하여  
흙은 숨을 쉬고 자지않음이라 다만  
夜叉와 같은 同族이 있어  
歷史에 밀린 斷層의 최후를  
세템 칼 끝으로 支撐하라고  
매암돌이 몸부림치는 너 비리<sup>37)</sup> (「頌歌」)

이상과 같이 제국주의, 봉건친일파들을 제거하고 그들이 세울 것은 인민주권에 의한 민주주의 공화국이다.<sup>38)</sup> 설정시에 나타나는 민주주의 와 주권의식은 이러한 남로당 계열에 의해 진행된 인민공화국의 정치구상에서 분비된 정치이념으로 볼 수 있다. 1930년대의 프로문학과는 다르게 계급의식보다는 인민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앞세우고 있음은 그의 시의식이 진보적 민주주의 혁명론에 입각한 남로당의 정치이념에 밀착해 있음을 반증한다. 인민의식의 고취와 인민의 찬양, 인민주권에 의한 공화국의 수립이 설정식 시의 커다란 테제로 자리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인민에의 동참은 진보적 리얼리즘의 구체적 방안이기도 했다. 리얼리즘에서의 진실 포착은 인민의 투쟁에 동참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인민의 진보적 민주주의 건설을 향한 투쟁을 고취하기 위해서 작가는 인민의 편에 서서 인민의 위대함과 그들의 불굴의 신념을 형상화해야 했던 것이다.

말굽이 지나오고 또 지나가도  
劫火 따끌에서 따끌을 쓸어도  
드울을 엉켜잡은 雜草 뿌려지  
쓰러지지 않는 年代는 자못

37) 시집 「포도」수록.

38) 좌익진영에서는 1945년 9월 6일에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한 바 있다.

人民으로 불어 人民의 억개 우으로만 넘어갔다.

피라 화려 할 대로  
 그러나 白花 너의들의 발 아래  
 年輪으로 헤아릴 수 없는 生命으로  
 無限족었다 다시 살어나는  
 여기  
 뿌락지들임을 알라<sup>39)</sup> (「잡초」)

이와같이 불멸의 신념으로 무한히 타오르는 인민의식을 찬양하고 있다.  
 이러한 굳건한 인민의식과 인민의 땀으로 이루어 낸 것이 바로 인민공화국임을 다음과 같은 시에서 노래하고 있다.

이제 때 正히 웃음은  
 보람 헛되지 않음이니  
 歷史가 스스로 구울리고 또  
 털어트리는 果實이라  
 새삼스러이  
 血書를 써서 무삼하리오  
 山을 떠나 불기둥되어  
 일어선 우람한  
 城砦는 바위라 그는 곧  
 人民共和國主權이니  
 妖魔 물려섬을 이름이오  
 方位 바로 잡힘을 告함이라<sup>40)</sup> (「현사」)

인민의 땀과 인민의 어깨로 국수주의자인 요마를 물리치고 인민공화국 주권을 바위처럼 굳건히 세울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앞에 인용한 「송가」에서도 인민의 母盤인 조국땅에 인민봉화를 높이 올려 공화국의 주권을 강양할 것을 노래하고 있다. 또한 이 공화국 수립을 위해서는 인민을 영도해 갈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설정식은 이러한 지도자의 출현을 다음과 같이 찬양하고 있다.

39) 시집 「종」수록.

40) 시집 「포도」수록.

그 넓고 든든한 전등에  
 내 업히어  
 겨우 마람을 피하는  
 여원 넝쿨일지라도  
 내 이제 무엇을 근심하리오  
 강함과 약함이  
 하나인 영도권이오 또  
 영도자인 그대여  
 그말이 있거늘  
 다만 주겁 직전까지  
 服務있을 뿐이외다.<sup>41)</sup> (「내 이제 무엇을 근심하리오」)

이 시는 1953년 숙청 당시 판결의 최후 진술에서 공산당에 입당할 때 쓴 것으로 박현영을 수령으로 추대하여 쓴 시였다고 고백하고 있다.<sup>42)</sup>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시는 설정식의 문학이념이 남로당의 정치이념과 일치한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반증하는 것이고 그의 정신적 지도자가 남로당을 이끌어 온 박현영이었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1949년 보도연맹에 가입한 후 「붉은 군대는 물려가라」는 반공시를 낭겼듯이<sup>43)</sup> 설정식의 시쓰기는 현저히 정치편향적이었던 것이다.

## 2) 혁명적 낭만주의

전술한 바 혁명적 낭만주의는 미래의 꿈에 대한 확고한 전망, 주인공의 영웅적 정신과 혁명적 열기, 정서적 감염을 위한 낭만적 전략을 본질로 하고 있다. 단편 서사시 「작별」과 「아가웨 열매를」에서 이러한 성격이 선명히 드러난다.

셋과 또 저 세사람이 만나  
 여섯사람의 굽은 심줄로 잡아다니는 것  
 민주주의의 두티운 깃쪽

41) 시집 「포도」 수록.

42) 김남식, 앞의 책, p.504.

43) 「붉은 군대는 물려가라」는 시 내용은 38선을 가로막고 3천만 조선민족의 분열을 회책하는 자는 소련군대라는 것이었다고 회송하고 있다. 김남식, 앞의 책, p.496.

그는 비싼 승리라

그것을 밀기에 떠나가는 것이오

그것을 밀기에 슬프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남편의 말투로

남편의 시를 읽었다

윙윙거리는 바란소리를 미닫이로 듣는 것은 침묵

그것은 청춘과 시와 행동속에서 괴이

는 술——혁명<sup>44)</sup> (「작별」)

네 어찌 무슨 낮으로 저 혼하고 혼한

총알을 혼자서만 두려워하랴

가자

가자 이렇게 푸르고 또 뜨겁게 하며

꿀과 노래로 청춘과 총알사이로 가자

뻐근하게 살아갈 보람도 있는

삶을 조상하며 또 꿀벌벌 꾀벌벌

붉은 아가웨 열매를 삼키면서

남조선으로 가자.<sup>45)</sup> (「붉은 아가웨 열매를」)

예시에서 보다시피 미래에 펼쳐진 꿈에 대한 확고한 전망, 그것을 위한 투쟁의 열기와 신념이 낭만적 詩情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술과 시, 청춘과 노래로 감싸인 혁명은 꿀과 아가웨 열매처럼 달콤한 환상이고 낭만이었던 것이다.<sup>46)</sup>

### 3) 「해바라기」 이미지

설정식의 시편에서 해바라기는 중심심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시집 「종」의 해바라기 연작시 외에도 6편의 시들이 해바라기를 시적 소재로 삼고 있다. 설정식을 해바라기 시인으로 명명해도 좋을 만큼 그의 시심에 해바라기가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 초기의 해바라기는 희망과 광명의 상징으로서 다시 말해 해방의 꽃으로서 그려진다. 그러나 해방의 의미가 서서히 변질되면서 때로는 투쟁과 항쟁을 상징하는 혁명의 꽃인

44) 시집 「제신의 분노」수록.

45) 시집 「제신의 분노」수록.

46) 이 밖에 「해바라기 1」, 「舞」, 「진리」 등도 이 계열에 넣을 수 있다.

민의 꽃으로, 때로는 붉은 사상의 태양을 닮은 이념의 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해방의 꽃에서 혁명의 꽃으로, 다시 이념의 꽃으로 변전되는 과정이 곧 설정식의 시의식의 변화과정으로 볼 수 있다.

## A) 해바라기 꽃이 드높이 펴서

도라오라 백경

좋다 묵은 터에서 쌀밥먹든 생각을 할 놈도

가치 8월 새하늘

무당 안진뱅이 유걸이 판수

아

막대는 짚어 무얼하느냐

아모데 엎어져도 우리들의 황토

실컷 한동이 먹으리 가자.<sup>47)</sup> (「삼내 새로운 밧줄이 드리우다만 날」)

## B) 아름다운 8월 태양이

한번 솟아 널죽한 민족의 가슴우에

둥글게 타는 기록을 찍었소

그는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목마른 사람들의 꽃이오

그는 불사조

괴로움밖에 모르는 人民의 꽃이오

오래 오래 견디고

또 기다려야 될 새로운 8월이 왔오

해바라기 꽃다발을 엮어

이제로부터 싸호리 가는

인민십자군의 머리에 얹으리다

해바라기 쓴 술을 빚어 놓고

그대들 목<sup>을</sup> 축이라

을 때까지 기다리리다.<sup>48)</sup> (「해바라기 쓴 술을 빚어 놓고」)

## C) 가슴마다 타는

해바라기

47) 시집 「종」수록.

48) 시집 「종」수록.

붉은 사상의 태양을  
무엇으로 막으려는가.<sup>49)</sup> (「反歌」)

A)는 민족에게 광복을 가져온 해방의 꽃으로서, B)는 해방정국의 어둠과 혼란, 카오스적 상황을 물리치는 새로운 혁명의 꽃으로서, C)는 붉은 사상으로 채색된 이념의 꽃으로서 해바라기를 형상화하고 있다. 해방의 기쁨이 뜨거운 혁명의 열기로 고조되었다가 차가운 이데오로기로 냉각되어 간 해방정국의 역사흐름과 시대기운을 상징적으로 표상하고 있다.

#### 4) 예언자적 목소리와 단편 서사시

「종」, 「제신의 분노」 등의 시편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에서 보이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1948년에 써어진 「제신의 분노」에서 해방정국을 이스라엘의 아모스 시대처럼 한켤레 신발을 얻기 위해 형제를 옥에 넣고, 동족의 살을 깨물며, 이방인에게 처녀를 파는 카오스의 상태로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죄를 뉘우치고 의로운 인민의 뒤를 따르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민족사에서처럼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메시아 사상이 민족의 구원을 위한 횟불일 수 있듯이 카오스로 인식된 해방정국의 혼란기에 있어 예언자적 목소리는 구원의 메아리로 받아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예언자적 목소리가 이미 선택된 이념과 체제에서 발화된 것이라면 뉘우침과 구원의 반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sup>50)</sup> 한편 설정식의 시에서 단편 서사시의 유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임우」, 「작별」, 「진혼곡」 등이 그것이다. 설정식의 서사시 창작의 정후는 그의 초기시 「거리에서 들려주는 노래」(1932년)에서 엿볼 수 있다. 이 시는 당시 유행하던 프로시의 영향 특히 임화의 서사시인 「네거리의 순이」를 흡내 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단편 서사시는 프로문학의 대중화론에 입각하여 1930년대 초 임화를 중심으로 시에서의 사실주의를 추구한 창작 방법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목적의식적인 개념시의 추상성과 서정시의 감상성을 배제하고 현

49) 시집 「포도」수록.

50) 설정식시의 예언자적 목소리에 대해서는 김윤식, 앞의 책, pp. 202-209를 참조할 것.

실에 대한 객관적 태도를 견지하는 시에서의 리얼리즘 정신의 심화를 위한 것이었다. 단편 서사시는 비교적 선명한 서사적 짜임을 갖춘 일종의 이야기시(narrative poetry), 또는 극적 태도를 지닌 배역시(Rollen-gedichte)의 일종으로서 정착과 서사의 중간양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sup>51)</sup> 이러한 방법론에 의해서 써어진 것이 임화의 「네 거리의 순이」(1929년) 이었다. 이 단편 서사시는 이후 프로시의 기본양식으로 정착되어 김창술, 박아지, 이찬, 안용만, 이용악 등으로 이어지고 해방후에도 한진식, 김상훈 등이 계승하고 있다. 「임우」는 헤리를 피해 산으로 들어간 친구를 그의 어머니가 찾아 헤맨다는 이야기를, 「진흔곡」은 일본에 노동자로 떠나 온 원보와 순이가 관동 대지진 때 일본인들의 잔악한 학살로 희생되는 민족수난사를 극화하고 있다. 「작별」은 혁명가와 혁명가의 아내가 비밀리 조우하며 서로의 뜨거운 동지애를 확인하고 다시 혁명의 길을 떠나는 재회의 과정을 100행 가까운 장편으로 그려내고 있다.

## V. 결 론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설정식은 해방정국의 혼란속을 시쓰기로 몸소 해쳐나간 정치적 시인으로 볼 수 있다. 해방의 역사흐름과 시대기류를 직접 체험하고 시라는 언어장치를 통해 이를 생생히 증언코자 하였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시쓰기란 생생한 역사의 기록이고 시대의 증언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미 한쪽으로 편향된 체제와 이념의 척도로서는 해방공간의 시대적 의미와 역사의 방향성을 올바로 가름하기는 힘든 것이었고 역사적 균형감을 잃어 갈수록 그가 선택한 이념과 체제에 몰입해버리는 파탄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거시적인 눈으로 미소강대국의 역학관계를 투시하지 못한 채 미시적 안목으로 해방공간을 받아들임으로써 카멜레온적인 변신만을 거듭하다가 끝내는 그가 최후로 선택한 이념과 체제에 의해서 희생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설정식 생애의 비극성은 그의 시창작에서도 드러난다. 이데오로기와 민족이라는 관념에만 매달린 나머지 그의 시는 도처에서 파탄을

51) 단편서사시에 대해서는 정재찬, 「1920~30년대 한국경향시의 서사지향성 연구」(서울대 대학원) 참조.

일으키고 있다. 설정식의 시는 몹시 거칠고 현학적이며 관념적인 편이다. 이념의 뜨거운 분출을 위해서는 다소 거친 시어도, 시문법의 파괴도 용납될 수 있는 것으로 믿었던 것 같다. 사전에도 찾아 보기 힘든 신조어, 난해하기 그지없는 한자어들이 속출하고 구두점의 무시, 행갈이의 혼란, 주어와 술어의 무분별한 배치와 생략 등 시문법의 파괴가 도처에서 산견된다. 또한 논어, 장자의 한시구는 물론 라틴어, 불교용어, 성경의 에피그램, 회랍신화, 동서양의 우화에 이르기까지 현학적인 딜레땅띠즘의 축제가 현관히 펼쳐진다. 이러한 결과로 난해성과 관념성이 배가되고 그 자신이 강조했던 문학의 인민성과 대중성에서 점점 멀어졌던 것이다. 시를 인민족대 다수의 공유물이 되게 하자는 스스로의 주장은<sup>52)</sup> 공허한 이론으로 떨어지고 만 셈이다. 문학이 정치에 예속될 때 그리고 이념과 관념의 포로가 될 때 필연적으로 도래하는 예술적 파탄을 설정식의 시는 선명히 보여 주고 있다.

### <참고문헌>

- 김용직, 『해방기 한국 시문학사』(민음사, 1989)  
 김윤식, 『한국현대소설비판』(일지사, 1981)  
 권영민, 『한국민족문학론 연구』(민음사, 1988)  
 이철주, 『북의 예술인』(계동사, 1966)  
 김남식, 『남로당연구』(돌베개, 1984)  
 「홍명희·설정식 대담기」, 「신세대」(1948년 5월 호)  
 강만길,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1984)  
 『전설기의 조선문학』(백양당, 1946)  
 신형기, 『해방직후의 문학운동론』(화다, 1988)  
 정재찬, 「1920~30년대 한국경향시의 서사지향성 연구」(서울대 대학원, 1987)  
 T. Meray, 「한 시인의 추억」, 「사상계」(1962년 9월호)

52) 시집 「제신의 분노」 부록 「Fragments」